


2021.12.22

성탄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두 손 모음 가족 여러분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오신 날을 준비하며 기쁨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몽골도 곳곳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장식과 트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길고 추운 겨울이 한창입니다.

이 곳은 지난 가을과 초 겨울 동안 '위드 코로나' 를 보내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 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제는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감염상황이 어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이제는 코로나를 앓지 않은 사람을 세는 것이 더 빠를 만큼 모두가 이미 한 두차례 감기처럼 이 병을 앓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내부 공사 및 공간 재배치 작업은 원래의 계획보다 너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사 인력부족과 자재 공급 지연으로 새 학기초 완공을 목표했던 것이 학기 중반부를 거의 지난 후 에야 완공되었으며, 아직도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화량 선생님이 섬기는 패션디자인 학과의 프로그램 인증심사 전에 그 학과의 공사가 정말 기적적으로 마무리되었고, 11 월 18 일과 19 일 이틀 간의 인증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증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패션 디자인 학과 인증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나와 주신 다섯분의 대표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었으며 학과의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과의 모든 기록이 공유되어 있어야 하는 교학과, 인사과, 총무과 등의 서류에서 (지난 5 년간의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누락된 서류들이 발견되어 인증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인증 과정을 통해 학교가 한 층 더 성장하는 데에 있어 많은 부분들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패션 디자인 학과가 첫 프로그램 인증을 받게 되면 이로 다른 학과들이 차례대로 인증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과 프로그램이 무사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 학기 시작 후 초반 4 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 했었고, 이 후에는 학교 수업이 가능한 수업, 즉 교실이 준비되고 교수가 국내에 있는 수업만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몇 주동안은 학생들을 학교로 오도록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학교에 오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몸이 편한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가고 싶어했습니다. 이에 무엇이 학생들에게 더 좋은지에 대해 학교내에서도 의견차이가 많았지만 학교는 가능한 모든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진행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능한 대면수업으로 학생들 과의 친밀한 관계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학생들은 매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아버지를 배우며 마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주일 모임 역시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함께 모여 먹고 나누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 달아 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학생들이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삶을 이루도록 함께 두 손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학기에 정화량 선생님이 패션 디자인 학과장을 맡게 되면서 많은 부담을 주어졌습니다. 특히나 2 년 가까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다가 다시 오프라인 수업으로 옮겨지는 과정과 더불어 학과의 건물 이동 및 공사, 그리고 학과 인증 작업까지 더해져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학과들과 마찬가지로 패션 디자인 학과 역시 교수인력이 부족한 한 학기였고, 정화량 선생님 외에 다른 교수님들 대다수가 한국에 계신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아이들을 사랑해 줄 교수님들이 더 오셔서 함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며 학기가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된 데에는 주변의 많은 도움과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함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학기동안 여려 일들을 겪으며 정화량 선생님의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학기에 돌아오신 한의학 선생님께서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더 나은 치료를 위해 겨울동안 한국에 다녀오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기 이전부터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한국에 다녀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었는데 그 때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맞는지 계속 기도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는 다시 함께 기도하고 겨울 방학 동안의 한국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 항상 함께 두 손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아버지를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COVID-19 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있더라도 저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저희를 이끄실 때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섬김과 순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보이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두려움이 앞서더라도 결국은 그 분의 계획에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 손 모음 가족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두 손 모음과 후원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기쁨이 그리고 그 분의 충만하신 은혜가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 여러분께 더욱 충만하시기를 두 손 모으고 있습니다.

장진영, 정화량 드립니다.

**<u>두 손 모음 제목</u>**

1. 저희 부부가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은혜안에 살도록.
2.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몽골 가정들과 학생들에게 아버지의 평안과 도우심이 임하도록.
3. 세계 곳곳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Pandemic 가운데 안전 하시도록,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더욱 강건 하실 수 있도록.
4. 정화량 선생님이 섬기시는 패션디자인 학과가 학교 내 첫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5. 저희가 양육하는 학생들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6. 미국, 한국,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그들이 늘 감사하는 가운데 매일 더욱 아버지를 사랑하도록.